

111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9)

주제: 대만에서의 일본어계 외래어

중국문화대학교 111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특강 제 9 회 강연에서는 중국문화대학교 일본어문학과 종계유(鍾季儒) 교수를 초청하여 「대만에서의 일본어계 외래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1997 년부터 중국어 속의 일본어계 외래어를 연구해 온 종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25 년간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외래어의 기본 인식, 중국어 속의 외래어 특징, 대만에서의 일본어계 외래어의 종류, 역사의 연혁(沿革)과 사용 현황을 설명하였고, 일본어계 외래어가 대만 언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래어의 기본 인식

세계 여러 언어에는 어느 정도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외래어는 세계 각국의 문화 교류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외래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원래 없었던 새로운 사물, 개념, 사상 혹은 원래 있던 항목에 의도적으로 외래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함이다. 외래어는 언어에 녹아 그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일시적인 언어 현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수도 있다. 일본어 외래어는 대부분 가타가나로 표기되어 있어 판별하기 쉬우나 중국어는 전부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읽고 이해하며, 글자 그대로 외래어의 위치를 판단해야 한다.

중국어 속의 외래어

중국인들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새롭고, 낯선 것을 좋아하지 않아, 중국어는 세계의 다른 언어에 비해 외래어 수가 적은 언어이다. 한자는 표의문자로 음역(音譯)이 적합하지 않으며, 의역(意譯)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외래어를 대량 생산할 수 없어, 중국어 속의 외래어 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대만에서 일본어계 외래어가 대량으로 들어온 것은 청나라 말, 중화민국초기(民初)의 근대와 1980 년대 후 현대로, 이 두 단계에서 나타난 일본어계 외래어는 상당한 비율로

일상생활용어로 바뀌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외래어를 번역하는 방법으로 1. 외래어의 발음을 빌려 가장 비슷한 한자로 쓴 「음역(音譯)」 2. 외국어의 의미를 흡수하고, 중국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로 표현하는 「의역(意譯)」 3. 외래어 문자 형태를 빌리는 「차용(借形)」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용(借形)」은 일본어계 외래어 중 어수(語數)가 가장 많다. 비록 중국어의 문체를 이용한다고 해도 내용의 의미와 문화는 이미 일본화되어 차용어(借形語)는 일본어계 외래어 연구에 주축이 된다.

중국어에서의 일본계 외래어

대만의 일본어계 외래어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근대 외래어: 중국 청나라 말, 서양 문명문화가 대량으로 유입되었고, 같은 시기 일본도 메이지 유신으로 서양 문화를 흡수하고 있었다. 중국과 일본은 이 시기에 대량으로 번역하여, 상당한 외래어를 생산하였다. 일본의 역어(譯語)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중국의 문장이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번역을 대체하였다. (예: democracy 德謨克拉西→民主(민주)) 이 시기 일본의 역어(譯語) 중 일부는 「회귀사(回歸詞)」, 즉 원래 중국 고서의 어휘로 일본에서 차용되었다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후 다시 중국어로 전회(傳回)하였다. 경제, 사회 등과 같다.

2. 잔존(殘存) 외래어: 1895-1945년 대만은 일본 식민지였으며, 일본어 교육을 강화한 지 몇 년 만에 일본어가 보편화되었다. 당시 대만인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일본어를 사용해야 했으며, 집에서는 모어(민남어, 객가어 등)를 사용하였다. 자연스럽게 두 언어가 혼용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가 되었다. 대만의 다양한 언어에 잔류한 일본어 어휘는 대만에만 있는 일본어계 외래어가 되었다. 榻榻米(たたみ)、歐吉桑(おじさん)、甜不辣(てんぷら) 등이 있다.

신외래어 연구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이 패배하자 대만은 국민당 정부가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일본의 통치 영향을 모두 일소하고, 언어 정책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일본어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일본과의 교류 빈도를 최소화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상업적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회복되었다.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일본의 대중문화 수입 규제는 서서히 풀렸다. 1993년 유선방송 第四台를 개방하고 마침내 일본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게 되었고,

啥日(일본 대중문화를 좋아하다)의 사회현상이 일어났다. 일본 유행 상품이 점점 많아지고, 새로운 외래어가 많이 차용되어, 대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종 교수는 이 시기에 대만에 전래된 일본어계 외래어를 「신외래어」라고 불렀는데, 우선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대만에서 발행하는 일본 정보지 <일본문적(日本文摘)>과 <Taipei Walke>를 활용해 1,721건의 일본어계 외래어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일본어계 외래어 중 차형어가 70%를 차지하였으며, 유행, 생활, 경제 관련 어휘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종 교수는 「자유시보(自由時報)」를 통해 21세기 초반에 상당히 활성화되었던 두 개의 새로운 외래어 「達人」, 「ポケモン(精靈寶可夢)」를 조사하여, 다양한 새로운 외래어의 변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종 교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외래어의 사용을 확립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래어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 학생들이 언어 학습에 촉각을 펼쳐 매일 사용하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좀 더 민감하게 바라보며, 이를 통해 일본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網頁連結: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撰稿: 鍾季儒 日文系・助理教授)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